

[보도자료] 쿠팡, 글로벌 LCD TV 점유율 2위 브랜드 TCL 직수입 론칭

2022. 3. 29.



- TCL, 선도적 기술력으로 선명한 화질 등 우수한 품질 상품 제공
- '로켓설치'로 전문 설치기사가 직접 대형TV를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가능

2022. 3. 29. 서울 - 쿠팡이 글로벌 TV 브랜드 TCL 제품을 직수입해 국내에서 론칭한다.

29일 쿠팡은 글로벌 TV 브랜드 TCL을 론칭하는 동시에 이를 기념해 최대 15%의 제휴 카드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쿠팡에서 TCL을 직접 수입해 유통과정을 단축함으로써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국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TCL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지만, 글로벌 LCD TV 점유율 2위 브랜드다. 또 TV에 사용되는 패널, 칩 등을 직접 제조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의 생산하고 있다.

쿠팡은 TCL 상품을 직수입해 유통과정을 줄이고 국내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직수입해 론칭하는 상품군은 안드로이드 스마트 TV로, 32형(81cm) HD, 40형(100cm) FHD, 43형(110cm) FHD, 50형(128cm) UHD, 55형(140cm) UHD, 65형(165cm) UHD, 75형(191cm) UHD, 85형(215cm) UHD, 55형(140cm) QLED, 65형(165cm) QLED, 75형(191cm) QLED 등이다. 쿠팡에서 구매한 TCL TV 제품은 2년의 패널 품질보증기간을 제공한다.

조나단 박스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가성비 좋은 TCL의 TV를 국내 고객이 편리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쿠팡이 직수입 론칭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TCL 직수입이 가성비 좋은 TV를 찾고 있었던 고객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이 같은 대형 TV와 같은 가전 및 가구 상품을 전문 설치기사가 직접 배송 후 설치하는 '로켓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가전이나 가구 상품은 제품 수급, 배송일 조율 등의 문제로 주문 후 수일이 걸리지만, 쿠팡에서는 오후 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른 로켓상품처럼 구매 후 다음날을 포함하여, 구매일로부터 2주 내 고객이 지정한 희망설치일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배송지역, 제휴업체 등에 따라 설치일은 달라질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